#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신앙

## (예레미야 9:1~26)

1.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2.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4.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5.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6.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신앙'
여필종부(女必從夫), 삼종지도(三從之道), 칠거지악(七去之惡) 등 유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가르침들이 여성에게 적용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황해도 운율 지방에 무남독녀 외딸을 금이야 옥이야 키우다가 드디어 시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딸을 불러 '시집살이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고달프기 이를 데 없는 삶인즉 보고도 못 본체, 들어도 못 들은 척, 말없이 살아야 하느니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이 시집을 가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의 세월을 작정하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벙어리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할 수 없어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동하고 친정 마을 어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풀숲에서 갑자기 꿩 한 마리가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습니다. 이를 본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아이쿠 우리 마을에 꺼꺼덕(꿩의 사투리)이 날아가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한 며느리를 본 시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벙어

리라서 말을 할 줄 몰랐던 며느리가 친정 마을에 오고서야 말을 하자 시아버지는 그제야 이제껏 며느리의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보아도 못 본 체, 들어도 못 들은 척, 말도 못하면서 세월을 보낸 며느리를 가엽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며느리였다면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의 삶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애의 모습이 앞서 보았던 며느리와 같이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이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베푸시고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실 때도 있었기 때문에 벙어리 3년은 아니었지만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을 작정했던 며느리처럼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라고 하셨습니다. 또 28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보실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며 당연히 판단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거나 표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안 보는 것과 마찬가지셨고 듣지 않는 것처럼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육체로 만나는 대상들에 의해서 보고 듣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생각한 후에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고 듣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결국 안 보고 안 들은 것처럼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삶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시점에서부터 장님 평생, 귀머거리 평생으로 살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으로 사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려면 장님 평생, 귀머거리 평생으로 살아야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활을 쏘듯이 서로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면서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6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속이기 때문에 형제나 이웃까지도 조심하며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들이 특별히 악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와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에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짐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우리와 똑같은 풍요와 다산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풍요와 다산의 개념이 부자 되고 부흥하며 형통하고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선민들은 우상숭배를 동원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번영과 형통을 위해 다른 수단을 채택했을 뿐이지 우리에 비해 이들의 마음가짐이 특별히 더 악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선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로써 부부가 동침하여 서로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크기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고 연합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느끼고 실감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을 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을 마음 안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판단하게 되고 생각하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접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만을 표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였습니다.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을 작정하시고 마음을 봉쇄하셨습니다. 오직 마음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만이 발산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고 표현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사실에 기반한 말만 거짓말이 아니라,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봉쇄하고,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생각과 말만이 진실 된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생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조세계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대로 본래 없었으나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먼지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전체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면 모두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을 받아들이고 판단합니다. 또 이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여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레미야가 거짓이라고 말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격적 수준을 알기 위한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선민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자니 너무도 참담하여 본래 눈물샘만으로는 모자라서 머리 전체가 눈물샘이 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은 이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선민들의 사회적인 영적 분위기가 너무나 탁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광야에 나그네들이 모래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붕도 없는 노천의 피신처만 발견해도 그곳에 가서 살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보고 듣는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멋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사는 모든 것들이 거짓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 이유는 마음으로 간음하고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간음하고 반역했다는 것은 곧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는 사랑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랑과 기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곧 나의 마음에 담는 것이고 상대의 마음에 내가 담기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참여함으로써만 이 참 사랑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담아도 되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담음으로써만 기쁨이 가능합니다. 사랑의 정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기쁨의 정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써 느끼는 만족함과 행복함입니다. 이외에 참 사랑과 참 기쁨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간음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을 채워 넣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다른 신입니다.
'신'이란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으리라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영적 간음'이란 다른 신을 마음에 담은 상태입니다. 이 정의를 분명히 알 때에 믿음도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신의 대표로 재물을 언급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다른 신의 대표로 바알을 지목합니다. 선민들이 바알을 좇았다는 것은 단순히 나무로 깎아 만든 우

상을 숭배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알은 곧 풍요와 다산을 주장한다고 믿어지는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알을 좇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풍요와 다산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전하는 간음과 반역의 정체입니다.

다른 신을 마음에 두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풍요와 다산이라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고 돈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친구에 대해서도 그가 돈 버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돈이라는 다른 신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자녀를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방향으로 양육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판단과 생각은 영적인 간음과 반역에서 비롯된 거짓된 말과 행동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는 선민들의 이러한 상황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야 하나님을 몰라서 원죄를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선민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선민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까닭은 마음에 풍요와 다산이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초에 십계명의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지키면 우상숭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제1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다른 신입니다.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건강이라는 다른 신에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전체가 이러한 맥락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자랑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연합하여 서로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보고

듣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동시키십니다. 이때에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보고 듣는 대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거짓이 됩니다. 이미 내 마음에 다른 신이 있어서 배우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나오는 생각과 판단이 모두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눈뜬장님이고 귀 열린 벙어리가 됩니다. 오직 내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그 뜻과 생각을 표현해가십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는 내가 간섭할 수 없는 삶의 영역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으로 사셨던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고 듣는 대상들에게 그 뜻을 표현하시는 정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공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듣는 것들에 대해 뜻을 발동하신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자랑입니다. 또한 '내 육체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자랑입니다.

25~2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쩍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할례'는 곧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대표적 이방인으로써 애굽 에돔 암몬 모압 등이 언급되는데, 사실 이들은 문화적으로 할례를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선민들의 할례와는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같은 의미에서 신체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마음에 할례가 없는 자들이라 일컬으며 이들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나의 마음에서 육체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상들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면 내가 육체로 접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말씀이 나갑니다. 특별한 위인이나 종교적 천재들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

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라고 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삶은 모두 거짓됩니다. 마음에 다른 신을 담고서 영적인 간음과 반역이 일어나는 상태인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길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은 내가 판단하고 생각한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생각 그리고 내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간음하며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을 섬기던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합니다.
선민들에게는 십자가의 예표인 번제단이 있었지만, 이들은 번제단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는 방편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사까지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머리가 눈물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삶은 바뀝니다.
십자가를 몰랐을 때에는 회사의 상사들을 마주 할 때마다 '저것도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통해 눈뜬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됩니다. 상사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죽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제 상사에 대해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려워보일지라도 단 한 가지 일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에서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들에 대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의 주님의 공생애가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장님 평생, 귀머거리 평생으로 살아갈 때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또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이웃에 대해 당신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마음에 담는 것은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미치지 못하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영광 받으시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이라도 마음에 남아있는 한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 죽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되어서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대신에 장님 평생, 귀머거리 평생의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처럼 장님 평생 귀머거리 평생의 삶을 살며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공의로 채워지는 자랑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